

‘희망’ 2015 신년 인터뷰

④ 지역구도 타파 선두주자-이정현 새누리당 최고위원

“지역예산 확보 혼신, 기대 이상 성과”

호남 유일의 새누리당 소속 지역구 국회의원이 이 정현 최고위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입’으로 불릴 정도로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지난해 7월30일 실시된 순천·곡성 보궐선거에 출마, 지난 1988년 소선거구제 도입 이후 20여년 만에 보수정당 인사로서는 최초로 호남지역 지역구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지난 1996년부터 호남에서만 3번 연속 낙마하는 경험을 했지만 이 선거에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측근인 서갑원 전 의원을 누르고 지역민의 선택을 받았다.

이 최고위원은 지난 1984년 당시 민정당 구용상 전 의원의 선거캠프에 합류하면서 보수정당을 통해 정계에 입문, 2002년에는 이회창 대선후보 캠프에서는 전략기획을 맡아 활동했으며 2004년 한나라당 수석부대변인 시절부터 박근혜 대통령을 보좌해왔다.



대답=박지경 서울취재본부 정치부 차장
- 지난해는 ‘이정현’에게 어떤 해였다.
▲개인적으로 오랜 지역구도 타파와 호남정치 경정구도 회복의 꿈이 실현된 평생에 잊지 못할 한해였다. 19년 동안 4번이나 호남에 출마해서 반드시 호남에서 여야가 존재하면서 경쟁을 통해 지역발전과 지역민을 위한 정치를 회복하자는 소망이 이뤄져서 가슴 벅찬 시간이었다.

대답=박지경 서울취재본부 정치부 차장
- 지난해는 ‘이정현’에게 어떤 해였다.
▲개인적으로 오랜 지역구도 타파와 호남정치 경정구도 회복의 꿈이 실현된 평생에 잊지 못할 한해였다. 19년 동안 4번이나 호남에 출마해서 반드시 호남에서 여야가 존재하면서 경쟁을 통해 지역발전과 지역민을 위한 정치를 회복하자는 소망이 이뤄져서 가슴 벅찬 시간이었다.

분석한다면 부족하다는 호남인들의 지적이 일리가 없지는 않다. 그러나 여러 가지로 상당히 복잡한 면이 있다. 내부에서 비공개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더 적극적으로 할 것이다.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처리에 대해 새누리당이 입장을 바꿔 지역민들의 불만이 많은데.

▲이전 상황을 잘 몰라서 입장을 바꿨는지는 잘 모르겠다. 그러나 그런 부분은 관련 부처와 타지역·사업과 형평성 등을 감안해서 조정했으면 한다. 그러나 어쨌든 예상 광주에 모처럼 대규모 문화시설이 들어선 만큼 합리적 조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 지역에서도 단지 지역 문제로 접근하기보다 실질적으로 문화산업을 살리고 예향에 걸맞은 운영비전과 콘텐츠를 제시해서 국민공감대를 이끌어내는 책임도 동시에 수행해야 한다.

- 보궐선거 공약인 순천 의대 유치는 잘 되고 있다.

▲의대 유치와 대학병원 설립을 위한 물밑작업을 하고 있다. 올 예산으로 순천대 의대 유치와 관련, ‘공공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 수급관리를 위한 용역’ 사업으로 1억원을 반영했다. 지역에 공공의료 인력이 부족해 이를 해소·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순천대 의대 유치를 하면서 지냈다.

- 자동차공장 유치 공약은 어떻게 되고 있다.

▲분야에 상관없이 대기업 유치작업을 계속하고 있으며 조만간 성과가 있을 것이다. 분야를 말한 단계는 아니다.

- 대통령 측근으로서 현 정부에 대해 평가를 한다면.

▲5년 임기에서 2년 만에 평가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 다만, 과거 정부와 차이점은 대통령이 경쟁상태를 야당 지도부가 아닌 오바마·시진핑·푸틴 등 외국의 국가지도자로 두고 중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베트남 등 5개국과 FTA를 체결하는 등 국제시장을 넓히는 일을 중요시하고 있다는 점을 평가하고 싶다. 또 대통령이 혼란과 정쟁의 중심에 서지 않고 경제·민생·외교·안보에 집중하는 ‘탈정치적 정치’를 해왔다는 점도 매우 의미가 크다고 본다.

- 청와대 비서실장 등 비서진 교체 요구가 거센데.

▲문제가 있을 경우 인적쇄신 요구는 나올 것이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 어떤 정권에서도 낙하산 인사, 불통, 비서진 전횡 논란은 계속 나올 풍토이고 현실이다. 문제는 과거 정권에서 대통령 자식·조카·형제 등 친인척과 계파 인물들에 의한 권력 비리와 횡포, 남용이 이어졌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현 정부는 그런 정부에 비해 심하지 않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권력은 남용의 여지가 있어서 경계해야 한다. 잘못된 측근의 경우 일벌백계하고 교체한다는 인상을 심어주는 것도 부조리를 막는 방법 중 하나다.

- 친박(친박근혜)계와 친이(친이명박)계 간 당내 갈등이 심해졌다.

▲두 계파 모두 대통령을 만들어서 개인 간 친소관계는 있을지 몰라도 계파 존재의 의미는 사라졌다. 또 국민이 우려할만한 갈등 수준은 아니다.

- 올 4월 광주 서구를 재보선에 어떻게 임하나.

▲절대 포기하지 않고 좋은 인물을 영입해서라도 공천하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 선거다운 선거를 치를 것이다.

▲인사를 물리적으로 솟자나 어떤 자리(요직) 등을 통해

현정부 호남 인사 소외 문제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 할 것
순천 의대 유치 물밑 작업 중
대기업 유치 조만간 성과 예상
문제 있을때 인적쇄신 요구 당원
새누리 서구를 재보선 포기 안해

원 자리를 받을 수 있는 유리한 고지를 확보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방침을 수습했다.
- 현 정부가 인사 등에 있어 호남을 소외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인사를 물리적으로 솟자나 어떤 자리(요직) 등을 통해

광주시 산하 기관장 인사청문회 출자·출연기관까지 확대될 듯

市 “시의회 의견 전향적 수용”
검증 범위·운영 방식은 이견

광주시 산하 기관장 인사청문회가 산하 공기업에 포함해 출자·출연기관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와 시의회는 그동안 산하기관장 인사청문회 대상과 검증범위 등에 이견을 보여 왔지만, 시가 시의회 의견을 전향적으로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광주시는 12일 “의회 입장이 정리되면 공사·공단에만 한정하지 않고 (인사청문회) 범위 선정에 대해 합의를 도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그동안 광주시공사와 김대중컨벤션센터 등 공사와 공단 등 4곳에 대해서만, 시의회는 공사·공단을 비롯한 출자·출연기관 10곳의 추가를 주장해왔다.

하지만, 이날 시의 입장변화로 출연기관

까지 확대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10곳 중 어느 범위까지 포함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검증 범위는 광주시는 내정자에 대한 능력을, 시의회는 능력과 도덕성을 검증하자고 주장하고 있고 청문회 운영 방식도 시는 해당 상위위에서 하자는 입장인 반면 시의회는 특위 구성을 주장하고 있어 막판 진통이 예상된다.

시의회도 이날 전 의원 간담회에서 광주시 산하 기관 인사청문회 문제를 논의하고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합의한 인사청문회 시행협약안에 동의했다. 행자위가 내놓은 협약안 중 청문회 대상은 공사·공단 4곳을 포함한 출자·출연기관 10곳이며, 검증범위는 능력과 도덕성을 검증하자는 것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우선 능력에 초점을 맞춘 뒤 도덕성으로 확장하려고 하는데, 이 또한 시의회의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본격화

유기호 센터장 선출·직원 3명 선발...내달 문 열어
전남 준비단 꾸려 재단 설립 행정 절차 5월께 출범

지역별 창조경제 조성의 거점 역할을 할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는 창의적 아이디어를 사업화하고 중소·벤처기업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곳이다.

또 현대차그룹이 광주시와 함께 지역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해 구축하고 있는 산학연 협력 거점으로 신생 창업팀과 중소벤처기업들의 사무 공간과 경영 컨설팅을 지원받는 공간으로 활용된다.

운영공간은 광주과학기술원 GTI(기술상용화 지원센터)와 광주 양동 KDB생명빌딩 16층 등이다.

최근 유기호(55) 전 현대·기아차 이사를 공모 끝에 센터장으로 선출했으며 직원 3명도 뽑았다.

2차 공모 끝에 선발된 유 센터장은 현대차에 입사한 뒤 전기자동차, 태양광 자동차, 연료전지 개발 등 역임했다.

지난해 11월 센터 설립 등기와 지난해 말 운영규정 제정을 마쳤으며 유망 아이디어 발굴지원팀과 창업지원팀 등 2개팀을 신설했다.

각 지역별 창조경제센터는 미래부 등 관계부처가 센터 설립을 주도하되 센터 운영 등 실무적인 사항은 민간 부분이 맡게 된다. 특히 삼성·현대자동차·LG·SK 등 15개

참여 기업은 지역의 벤처기업들이 창업 초기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멘토링·기술공유·마케팅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다음 달 창조센터가 문을 열면 센터를 중심으로 세부사업을 수립, 지역의 모든 혁신역량을 집중하도록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와 GS그룹이 추진 중인 전남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올해 5월 출범할 예정이다.

전남도는 유기호 정부부차사를 단장으로 하는 창조경제 혁신센터 준비단을 꾸리고 GS그룹측과 만남을 갖고 사업 발굴 및 재단법인 설립을 위한 행정 절차 등을 밟고 있다.

전남도는 여수에 후보지 3곳을 검토 중이며, 부지가 결정되면 창립총회를 열어 이사장을 선임하고 센터장을 공모할 예정이다.

도는 조만간 창조센터 구축 및 운영계획을 확정하고 출범식 준비에 들어갈 계획이다. 도는 ‘광양만권 기능성 화학소재 클러스터’ 구축과 연계한 첨단 소재부품, ICT 융합 스마트 농업 분야 등을 신성장 창조산업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한편 우부지사는 지난해 10월부터 매달 두세 차례씩 GS그룹과 면담을 갖고 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유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HanaTour (하나투어) featuring London Stock Exchange, travel packages, and a wedding & honeymoon fair. Includes contact information and website details.